

2017년 9월 6일, 인권 선언문의 전 세계적 읽기를 주창하는 호소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 갑자기, 이제까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민주 사회의 원칙, 예를 들자면 사법권에 대한 존중 등이 갑자기 폐지되거나, 절대적이 아니어서 때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으로 급락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현 미국 대통령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서구의 일부 기존 정치인과 당선유력자로 물망에 오르는 일부 정치인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 그리고 유럽 연합 (EU) 회원국의 지위에 대해조차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사실인 기후 변화까지도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칭해지며, 그와는 반대로 실제와 거리가 먼 가짜뉴스가 대중매체의 담론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수주의적인 시대의 흐름이 강해지고 극우·극좌파 정당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무시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성향의 총리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시민 사회를 갈가리 헤어지게 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 인사와 야당의 활동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도 범행으로 간주하며,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불법으로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시리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들의 경제적 성공이라는 상황을 마주하여, 국제 무역 관계에서의 강자로 아무도 중국 정부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경찰국가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대파에 대한 섬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연하게 생각되던 평화는 유럽대륙에서도 꺾이기 쉬운 어린 생명일 뿐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를린 국제문학 페스티벌(ilb)은 문화단체와 정치기관, 학교, 대학, 대중매체 및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에게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세계적으로 열리는 낭송회 및 이에 연이은 주제토론을 통해 인권 선언문 30 조에 깃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기본정신을 기억하기를 호소하며, 이것이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점진적인 국내적·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유엔 가맹국 국민 사이와 그 가맹국 관할하 지역의 거주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게 하도록 전 인류와 전 세계의 국가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1948년 10월 12일의 유엔 총회 결의 217A (III)]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을 되새김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엔의 웹 사이트에는 현재 500 개 이상(!)의 언어로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hchr.org/EN/UDHR/Pages/SearchByLang.aspx>. 2017년 9월 6일에 열리는 낭송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worldwidereading@literaturfestival.com. 행사 및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베를린 국제문학 페스티벌(Ib)의 웹 사이트 (www.literaturfestival.com)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